

SK에너지, 해외 설비보수도 동반성장

협력기업이 베트남 BRS 정기보수 수주 ... 제이콘 · 유백 · 대창기계 3사

SK에너지가 해외 프로젝트를 통한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에 나선다.

SK에너지는 울산공장의 정기보수를 전담하는 3개 협력기업이 최근 베트남 BSR(Binh Son Refining & Petrochemical)의 정기보수 담당기업으로 선정됐다고 4월18일 발표했다.

2009년 베트남 최초로 Dung Quat 정유공장을 건설한 BSR사는 2011년 여름 첫 정기보수를 앞두고 SK에너지의 협력기업인 제이콘, 유백, 대창기계기술을 정기보수 담당기업으로 선정했다.

3사는 석유화학 설비 건설과 정비보수 용역을 수행하는 울산 소재 전문기업으로, SK에너지 울산공장의 설비보수, 정기보수 등을 담당하고 있다.

BSR은 SK에너지의 협력기업 3사가 40여년간 SK에너지 설비보수를 담당하며 쌓은 유지 보수 관련 노하우를 높게 평가해 외국 경쟁기업 대신 첫 정기보수 담당기업으로 선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2009년 이후 Dung Quat 정유공장에 운전 및 운영 노하우 등을 수출하고 있는 SK에너지는 기업선정 과정에서 3개 협력기업이 국제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BSR에 사전에 별도 요청하는 등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국내 정유기업의 협력기업이 세계 시장에서 대규모 정기보수 작업을 하는 첫 사례로, 중소기업이 1500만달러 상당의 기술수출을 달성하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SK에너지 및 3개 협력기업은 4월18일 BSR사와 첫 미팅을 갖고 7-9월 정기보수를 위한 사전 준비에 들어가며, 7월부터 본격적으로 공장 설비의 정기보수 업무를 수행하면서 40여년간 쌓인 유지보수 경험과 기술을 전수할 예정이다.

SK에너지 성학용 BSR 운영본부장은 “47년간 축적해온 SK에너지의 수준 높은 보수 기술력과 협력기업의 역량이 더해져 시너지 효과 및 상생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1/04/18>